

장백산천지

2022년 5월 26일 까지 해외 대기원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수:

3억 9641만 명

2022년 5월 27일 제 434기 금요일

한국 파룬궁수련생들, '세계 파룬따파의 날' 경축



▲ '세계 파룬따파의 날' 단체연공 장면.

▲ 천국악단의 연주와 함께 대행진이 시작되었다.

[명후이왕] 사단법인 한국 파룬따파불학회 (韓國法輪大法佛學會) 는 지난 5월 13일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제 23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 이자 파룬따파 (파룬궁) 흥전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

5월 13일은 또한 파룬궁 창시인 리홍쯔 (李洪志) 선생의 생신이기도 하다 . 이날 오전 단체연공이 끝난 후 전체 파룬궁수련생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리홍쯔 사부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기념촬영을 하였다 . 수련생들은 지금부터 30년 전 이 혼탁한 시대에 '진선인 (真·善·忍)' 을 핵심 가르침으로 하는 파룬따파를 전해 주신 리홍쯔 사부님의 불은호탕 (佛恩浩蕩) 에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인사를 드리며 사부님의 생신을 축하드렸다 .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단체연공 시범

파룬궁 수련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서울광장에 나와 무대를 설치하고 오늘의 행사를 알리는 많은 현수막들을 행사장 주변에 설치하여 지나가는 시민들과 차량 탑승자들이 당일 행사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모처럼 화창하게 갠 날씨 속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파룬궁 수련생 800여명은 출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단체연공 시범을 보이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하였다 . 행사장은 서울 시청 청사 바로 앞이고 주변에는 유명 호텔과 많은 오피스 빌딩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과 회사원들이 출근길에 파룬궁 단체연공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파룬궁 수련생들이 입은 노란색 상의와 흰색 바지가 산뜻하게 느껴졌

고 서울광장의 푸른 잔디와 잘 어우러져 경축행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

행사장에는 최근 시작한 온라인으로 파룬궁을 배울 수 있는 'Learn FalunGong' 을 알리기 위하여 부스를 설치하여 관심을 가진 시민들에게 파룬궁을 소개하고 연공동작을 가르쳐 주었다 .

■ 서울 중심가에서 '세계 파룬따파의 날' 경축 대행진 진행

모든 수련생들이 대행진 행렬에서 미리 배치된 위치를 찾아 현수막을 배정받고 대행진 준비에 들어갔다 . 정각 12시를 기해 천국악단의 '파룬따파 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연주와 함께 이날의 메인 행사인 대행진이 시작되었다 . 수련생들은 시청광장을 출발하여 프레스센터, 동아일보사, 미국대사관, 정부종합청사, 광화문, 조계사 입구, 종각역,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시청광장으로 돌아오는 3km 구간의 주요도로에서 대행진을 진행하였다 .

대행진 행렬은 수련자들로 구성된 마칭 밴드 '천국악단'을 필두로 파룬따파를 알리는 조형물과 대형 <전법륜 (轉法輪)> 서적 모형, 한복팀, 연공시범단, 현수막을 든 참가자들, 중국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요고대, 탈당센터, 방송차량 등으로 구성되었고, 선두와 후미 간의 전체 길이는 1km 이상이 될 정도로 큰 규모였다 .

약 2시간에 걸친 대행진이 진행된 동안 도로 연변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신기한 눈빛으로 대행진 행렬을 구경하며 사진과 동영상 찍고 파룬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다 . (2면에 계속)

(1 면의 계속) 아직 파룬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않는 데다 이런 특이한 대행진 모습은 한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기 때문이다.

■ **진상을 알게 된 시민들**

행사를 지켜보던 중국인 유학생 리핑(가명) 씨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 놀랍다”며 “중국에선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에서 파룬궁을 박해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해외에 여행을 가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파룬궁이 원칙으로 삼는 ‘진선인(眞·善·忍)’은 전 세계에 필요하다”고 했다.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오는 6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중국인 유학생 리잉(가명) 씨는 “파룬궁은 심성 수련을 통해 도덕이 승화되고 몸이 건강해지는 좋은 수련법이라고 들었다. 배워보고 싶

다”며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을 더 이상 박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광장에서 만난 시민 김동수 씨(세무법인 삼한 대표)는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다는 진상을 들은 뒤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가 너무 심각하다”며 “장기적출까지 저지르는 만행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들이 수련생들로부터 파룬궁에 관한 진상을 듣고 있다**

거리 돌의자에 홀로 앉아 퍼레이드를 지켜보던 베트남인 도티난 씨(30)는 “친구가 몸이 아팠었는데 파룬궁 수련을 하고 나서 많이 건강해졌다”며 “그 친구를 보니 파룬궁 수련이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 배워서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10여년 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와 충남 당진에 살고 있다는 그녀는 수년째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얘기를 듣고 오늘 행사를 보기 위해 일부러 서울에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구가 파룬궁 수련 후 마음이 편해지고 성격도 좋아졌다고 한다”며 “파룬궁 수련서인 ‘전법륜’을 읽어보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주문했다. 곧 도착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어 “전법륜을 계속 읽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도 편해진다고 한다”고 전했다.

■ **파룬궁 수련인의 감은(感恩)**

이날 행사에 참여한 파룬궁 수련생 김경일 씨는 “파룬궁을 만나 건강을 되찾았다”며 “우울증, 공황장애, 당뇨, 고혈압, 부정맥 등 각종 질병이 겹치면서 심한 좌절감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다”고 털어놨다.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병이 없어지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무엇 때문에 캐나다 여러개 성시에서 파룬궁을 위해 깃발 게양식 또는 랜드마크 건축물 조명축제를 열었는가?

[밍후이왕] 매년 5월 13일은 ‘세계 파룬따파의 날’이다. 30년전의 이날, 즉 1992년 5월 13일, 파룬따파(法輪大法)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선생은 전 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대법을 전수 하셨다. 현재 100여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고, 주요저서 <전법륜(轉法輪)>은 이미 40여종 언어와 문자로 번역됐다. 올해 캐나다 여러개 성시에서 파룬궁을 위해 깃발 게양식 또는 랜드마크 건축물 조명축제를 열어 파룬따파 흥전 30주년을 축하하고 대법이 사회와 국민에게 가져다준 복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 **토론토 인권 변호사: 파룬궁수**

련생은 가장 우수한 캐나다 공민이다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 토론토 시정부에서는 5월 7일 밤에 시정광장표지물인 “TORONTO”에 노란색, 파란색, 자지색 조명으로 축제를 열고 토론토 시장이 포상과 축하편지를 발표했다.

낮에 진행된 경축활동에서 토론토 인권 변호사 조엘에티엔은 표시했다: “저는 인권변호사로서 파룬따파 단체가 이 몇십년래 경과한 고난, 고통과 각종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저는 캐나다 각 사회구역, 종교, 종족, 또한 부동한 문화배경의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대리변호사로 도와준적 있습니다. 파룬궁수련생은 가장 공헌이 크고, 가장 충성하며, 가장 훌륭한 캐나다 공민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예술, 과학, 상업, 문화를 물론하고, 또한 인권방면에서도 모두 업계의 압장자 있습니다. 당신들은 캐나다의 선물입니다. 파룬궁은 수련생더러 나쁜 행위를 버리도록 인도하고, 또 수련생더러 심신의 건강과 개인도덕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지난 30년간, 캐나다도 파룬궁과 파룬궁수련생의 덕분에 더욱 좋은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공헌, 역량과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진선인 (真·善·忍) 을 깨닫고 삶의 고생끝에 낙이 오다

[명후이왕] 원래 애정이 깊던 원리 (雯麗) 와 남편은 아쉽게도 늘 어떤 관념의 차이와 돈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고, 점점 부부 사이가 틀어져 이혼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다행히 파룬따파 (法輪大法) 를 수련하기 시작한 원리가 진선인 (真·善·忍) 에 따라 마음을 닦으면서 ‘돈에 관한’ 속박에서 벗어나 파탄 위기에 있던 가족을 구했다. 지금은 부부가 힘을 합쳐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고 있다. 가난한 부부는 만사가 슬프다는 말이 있다. 원리는 학자 가문 출신이라 아버지가 그녀에게 풍족한 재산을 남겨줬고 게다가 괜찮은 직업과 안정된 월급이 있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남편은 직장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책임지는 우수한 인재로서 두 사람의 결혼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커플이었다. 이렇게 훌륭한 커플인데, 어찌 말다툼이 그치지 않아 이혼할 지경까지 왔을까? 다음은 그녀가 겪은 이야기다.

■ 모친상으로 알게 된 슬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원리는 어른들의 ‘금지옥엽’같은 보호 속에서 자랐으나 하늘에서 오는 뜻하지 않은 풍운은 어찌할 수 없었다. 17세 되던 해에 어머니를 잃게된 여원 원리는 인생에 큰 빈자리를 느끼며 매번 어머니 날이 오면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젊어서 근심 걱정을 모르던’ 원리는 생명이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인생이 무엇을 위해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면서 밀종 (密宗) 을 잠시 접했지만 이내 흐지부지

그만뒀다.

■ 꿈에서 깨어난 듯한 깨달음

원리는 대학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 감사 공직을 맡았다. 직책은 잘못을 예리하게 바로잡고, 결점을 개선하도록 관련 기관에 지시하는데 시정된 사안이 많았고 성과, 승진에 영향을 미쳤다. 원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정적 사고와 관리 의식이 생겨 높은 곳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버릇이 생겼다고 말했다. “수련 전에는 사람을 대하고 일처리함에 진선인의 개념이 없었기에 하고 싶은 대로 잘난 체하고, 선의도 참을성도 없이 남을 대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저를 존중하고 참아줬어요.” 남들의 눈에는 원리의 직업이 월등히 높아 보였지만, 원리는 오히려 업무 부담과 성과 경쟁의 압박이 아주 심한데다가 퇴근 후 가정과 자녀를 돌보느라 매일 죽을 지경이었다. 그때 직장 상사가 그에게 파룬궁 (法輪功) 을 추천하며 연공을 가르쳐주었고, 원리는 ‘파룬따파 9일 학습반’에 참가하면서 잠재 의식에서 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법임을 깨닫고 대법 수련을 결심했다. 하지만 바쁜 생활에 마음을 쓰다 보니 법공부와 연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원리의 수련은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상태였다. 몸에 문제가 생겨 병업으로 생사의 관문을 넘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꿈에서 깨어난 듯한 각성으로 안으로 찾아보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수련으로 되돌아와 진정으로 수련에 들어왔다.

■ 냉담하고 교만함에서 겸손하고 따뜻함으로

어려서부터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원리는 잔병치레가 잦고 감기에



▲ 원리와 남편 커먼.

자주 걸렸다. 심각할 때면 먹지 못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며, 불면증, 배변이 불편했고, 안색도 매우 안 좋았다. 걸으면 숨이 차서 2층에 오를 때는 2, 3번 쉬어야만 올라갈 수 있었다. 남편은 그녀를 데리고 한의사에게 보였으나 완화되지 않았다. 승벽심이 강한 그녀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면 모두들 빨리 의사를 찾아가라고 권유했는데, 원리는 속으로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착실한 수련을 시작한 후, 그녀의 건강은 나날이 호전되었고, 이전의 증상은 어느덧 약도 먹지 않고 나왔다. 현재 원리는 매일 3시간씩 달콤한 잠을 자고 일어나 바쁜 하루를 시작하지만, 기운과 체력이 넘치고 혈색도 좋다.

그동안의 냉담하고 교만한 여성에서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고 진지하게 인사하자 남편의 친구는 혀를 두르며 놀랍고도 이상하다며 물었다. “어찌하여 부인이 달라졌나요?” “오! 파룬궁을 수련해서입니다.”

■ 시댁과의 심한 대립에서부터 화목한 가정으로

원리의 시댁은 장사하는 시골 사람이라 책도 얼마 읽지 못하고 표현도 서툴다 보니 말투나 태도가 말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시댁에 대한 경솔한 마음이 생겨 원리의 태도는 사소한 일에도 심한 대립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수저를 그렇게 씻어야 (4면에 계속)

(3 면의 계속) 깨끗하다고 말하면 원리는 바로 발끈했다. “아마 (阿婆, 대만에서 할머니를 가리킴) 는 저에게 이렇게 씻으라고 가르치나요!” 가정환경과 생활 조건상 원리가 자란 우월한 환경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였기에 시댁에 가는 것이 매우 두려웠던 그녀는 구실을 찾아 회피할 수 있으면 도피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원리는 진선인의 표준으로 자신을 단속하고 남을 너그럽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대하는 것을 배웠다. 각도를 바꾸어 생각한 원리는 시부모님의 소박하고 돈독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이전 관념의 잘못을 깨닫게 돼 대립 면은 나날이 평화롭게 융화되었다. 지금은 바쁜 와중에도 명절이나 평일에 기회만 있으면 기꺼이 시댁으로 가서 두 노인과 함께하며 시부모님이 좋아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보살펴줬다. 시어머니는 원리를 매우 좋아하며 많이 늘었다고 칭찬했다. 때때로 원리가 정말 시간을 낼 수 없어 못 가면 “원리는 왜 안 오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배려와 바람이 가득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반바지를 입고 앙상한 종아리를 드러내자 원리는 “발에 힘이 없는 건 세월의 흔적이니 시어머니가 많이 늙으셨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안타까움과 미안함에 가득 찬 원리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예전에 철이 없이 제멋대로 많은 일을 잘못했어요. 저와 커옌이 걱정을 끼쳐 죄송해요!”라고 사과할 기회를 얻었다. 수줍은 시어머니는 “괜찮아.”라고 말했다.

■ 집착의 관문을 뚫고 명(名), 리(利), 정(情)을 뛰어넘다

성격이 온화하고 총명한 원리의 남편은 창업에 매우 일가견이 있어 회사도 매우 활기차게 경영하며 마치 큰 그림이 펼쳐지는 광



◀ 파룬따파를 수련하면서 원리는 따듯하고 겸손하게 대했다.

경처럼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복의 신은 늘 그와 스쳐 지나가면서 한 번도 돌봐주지 않았다. 회사의 반복되는 적자는 매달 몇십만원의 인건비만 해도 골머리를 앓았고, 다른 비용 지출도 말할 나위가 없었다. 남편 회사 재무의 보증이었던 원리의 돈은 늘 채워도 채울 수 없었고, 계속된 자금 지원에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라는 불안감으로 원리는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먼저 진 빚을 갚으면 또 새 빚을 내고, 재삼 끊임없이 돈을 빌리고, 갚고 다시 빌리자 안전에 불안을 느낀 원리는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 회사를 그만두어라, 업종을 바꾸라고 강요하면서 싸움이 반복됐다. 친정 식구들에게 감히 알리지도 못하고, 단짝에게 털어놓지도 못하는 원리는 걱정거리가 말할 수 없었다. 괴로움과 억울함, 원망은 언어폭력으로 바뀌어 남편에게 향했는데 싸움이 심해져 이혼 위기까지 갔다.

“진선인(真善忍) 수련중 이는 명리정’의 시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먼저 금전적 손실에 대한 두려운 걱정과 불만을 떨쳐버리고 남편에게 자신이 체험한 깨달음을 정답게 이야기했다.

아직 수련하지 않으나 줄곧 원리의 대법 수련을 지지하던 남편은 원리의 체득과 제시된 계획을 인정하여, 부부는 한마음으로 어

떠한 시련과 곤경도 직면하기로 다짐했다. 신기하게도 그후로 상황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로 변해갔다

■ 환경이 마음에 따라 변해 비바람과 맑음도 없다

남편의 컴퓨터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창업 아이디어가 풍부했던 그가 개척한 다른 사업도 순풍에 돛을 단 듯 사업이 확장되면서 주류 인맥도 많아지고 계층도 높아졌다.

어려서부터 음악반에서 재능을 인정받았던 원리는 문화 예술계통의 주류가 안목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조건을 심사숙고하여 부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음악 강좌를 운영하여 선원을 널리 알리고 진상을 설명하여 기초를 닦기로 다짐했다.

게다가 남편의 인맥이 사회의 주류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로 되었다. 남편은 흔쾌히 찬성하고 열성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실행에 옮겼다.

재력이 있는 원리와 인맥이 있는 남편 두 사람은 서로 보완하고 도와서 일을 완성하기 위한 최고의 조합이었다. 마침 남편이 사무실을 바꾸려던 참이라 불과 한 달여 만에 적당한 장소와 넓은 곳을 찾았다. 사무실 외에 50~6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음악 강좌용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처럼 원리와 남편은 각자의 사업을 개척했으나 서로 협조하여 장점을 잘 배합하여 일의 성과가 돋보였다. 환경이 뜻대로 바뀌어 비가 갠 뒤의 상쾌함처럼 원리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쓸쓸하던 그때를 돌이켜 보니 비바람도 맑음도 없었다.



◀
취엔라이

매 1 분 1 초의 견지는 오직 한마디 말을 위해서 이다

이는 2020 년 봄에 발생한 일이다. 전염병 봉쇄시기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감옥 안의 상황을 밖에서는 조금도 알기 어렵다. 아래에 취엔라이(瞿延来)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한다.

[명후이왕] 취엔라이는 흑룡강성 대경시 파룬궁수련생이다. 2018 년에 불법 징역형 5 년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흑룡강성후란(呼兰)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 2020 년 초, 취엔라이는 집훈대(集训队)에 2 달동안 감금돼 있다가 후란감옥으로 전의됐다.

2002 년, 취엔라이는 불법 5 년형을 선고받고 불법으로 상해시티란초우(提篮桥) 감옥에 감금된적이 있다. 그가 받은 박해사실을 본 사람은 다 알다시피 그 5 년간 그는 “전향”하지 않았고, 배합하지도 않았으며, 범인웃도 입지않았고 줄곧 절식으로 박해에 항의해 인성이라곤 티끌만치도 없는 참혹한 구타를 받았다. 그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전향”하지 않는다.

취엔라이는 집훈대에 있는 두달내내 절식으로 항의했다. 그의 신체는 장작처럼 말라 원모습을 잃어 그와 익숙했던 사람마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 두달내내 받은 고통을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취엔라이가 2002 년 상해시티란초우감옥 박해의 자술중에서 서술한 한단락에서만도 그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는것을 알수있다. “5 가닥 끈으로 침대에 묶겨있는 느낌은 극히 고통스러웠고 온몸이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 고통은 형용할 수 없이 괴로워 매 1 분 1 초를 버티기가 어려웠다. 나는 생각했다. 하루는 24 시간으

로 조성되지 않았는가?! 1 시간은 60 분으로 조성되지 않았는가?! 1 분은 60 초로 조성되지 않았는가?! 나는 자신에게 물었다. 1 초만 더 견지하면 안될까? 문제없다! 그럼 나는 1 초 1 초씩 박해가 결속되는 그날까지 견지하자!” 그는 자신의 생명으로 파룬따파를 위해 공정한 말을 했다.

■ 취엔라이의 경력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복형인원은 출옥후 사회에서, 구치소 경찰은 귀가후 가족들과 “취엔라이는 절개가 굳세어 금강처럼 동요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다. 취엔라이가 파룬따파에 대한 바른 믿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고 모두들 그의 이야기를 전하며 찬송했다.

집훈대에서 두달 만기후 취엔라이를 9 대대 2 중대로 보냈다. 취엔라이는 여전히 범인웃을 입지 않고 연공을 요구했다. 9 대대 대대장은 사악한 꿈수로 감옥장에게 보고서를 올려 취엔라이를 우선 작은방에 가두고 장기간 구타하려고 했다. 괴이한 것은 감옥장은 보고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당신들 스스로 처리하라”는 몇글자만 썼다. 대대장은 보고나서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었던 나머지 아무도 관계하지 않는 것을 보고 경찰에게 “그를 관계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대로 내버려둬!” 라고 지시했다. 그때로부터 취엔라이는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

감옥장은 무엇 때문에 서명하지 않았는가? 사후에 감옥장은 하수

에게 말했다. 국외의 진상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는데 그중 한 전화에서 “당신들은 취엔라이를 박해하면 안됩니다. 전세계 외국인은 중국에 흑룡강성이 있다는건 몰라도 중국에 파룬궁수련생 취엔라이가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당신이 그를 박해해 죽이면 당신은 형법의 추구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가되면 당신의 사업과 전도는 끝장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로 부터 사당이 취엔라이를 박해한 진상자료가 세계각지에 널리 폭로됐음을 후란감옥 주재 무장경찰부대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었음을 보아낼 수 있다.

■ 무장경찰들은 그들이 인정하는 “영웅”을 서로 보고싶어 하다

9 대대에서 설을 쇠기 일주일 전 감옥 주재 무장경찰부대는 감실에 들어가 위금물품을 수색한다. 침대와 몸을 수색하는데 그 장면은 아주 공포적이다. 무장경찰은 두조로 나뉘어졌으며 그중 한 무장경찰이 가만히 물었다. “어느 사람이 취엔라이 인가요?” 누군가 알려줬다 “저기에 가부좌를 틀고 연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생각밖으로 젊은 무장경찰들이 “혹” 모여들었다. 이때 감방안의 분위기가 혼잡해지자 우두머리가 말했다 “봐도 되는데 거리를 두고, 한데 모이지 말아요” “됐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가면서 보세요.” 무장경찰들은 모두 그들이 인정하는 (6 면에 계속)

“가족을 구해주신 파룬궁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명후이왕] 2020 년 전염병 기간 지역사회 (社 區) 가 봉쇄 돼 사람들은 웬만하면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

어느 날 밤 , 제 아들은 한밤중에 43 도까지 열이 올랐습니다 . 이전에 이런 상황을 만난 적이 없었던 우리 가족은 다급해진 나머지 경건한 마음으로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라는 ‘9 자진언 (九字真言)’을 성심껏 염했습니다 . 아이의 고열은 금방 가라앉았고 다음날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 이 일에 몹시 놀란 우리 가족은 이처럼 신비한 파룬궁 (파룬따파) 에 감사드리고 리 (李) 대사님께 감사드렸습니다 !

작년 설날 이후 남편이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 친척은 남편을 자전거에 앉히고 집으로 향했고 저도 자전거를 타고 아이를 데리고 뒤를 따랐습니다 . 도중에 술기운이 올라 인사불성이 된 남편이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다급히 “큰일 났네 , 떨어지겠어”라고 소리쳤습니다 . 친척은 차를 세우고 남편을 등에 업드리게 한 뒤 남편에게 ‘파룬따파하오 , 찌싼런하오’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 남편은 고분고분 ‘9 자진언’을 집에 도

착할 때까지 염했습니다 .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 친척은 상체를 기대어 앉으라고 말하고는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 그리고 남편에게 잠들면 안 되니 계속해서 ‘9 자진언’을 염하라고 당부함과 동시에 저에게 옆에 앉아서 지켜보면서 수시로 흔들어 깨워 계속 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

남편은 염할수록 정신이 맑아지고 잠깐 사이에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 남편은 집으로 가는 길에 속이 좀 불편했는데 큰 소리로 ‘9 자진언’을 염하고 나니 속이 금방 편안해지고 몸만 피곤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 남편은 잠깐 휴식한 후 자전거를 타고 나가 일도 했습니다 .

저녁에 식사할 때 남편은 기뻐서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 “이 파룬궁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 오늘 리 선생님께서 저를 구해줬기에 제가 아무 고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 지난번에는 직장 동료와 술을 많이 마셨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했었지요 . 리 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얼마 전 어느 날 저녁 , 저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페니실린계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 30 분 후에 손발이 저리고 , 허리가 꼬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 갑자기 숨이 가쁘고

손발이 저리고 시리며 머리가 멍해지면서 온몸이 불편했습니다 . 남편이 와서 인종혈을 꼬집고 아들은 울면서 제 손을 잡고 ‘파룬따파하오 , 찌싼런하오’를 염했습니다 . 저도 소리를 내 염할 수 있으면 염하고 소리 낼 수 없을 때는 마음속으로 염했습니다 . 염하다 보니 정신이 맑아지는 신기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 당시 입만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는데 마치 몸의 체액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으나 괴롭지 않았습니다 . 목이 말라 단숨에 연거푸 물을 몇 잔 마셨습니다 . 이때 120 구급차가 도착했으나 저는 이미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가족들은 저를 병원에 가서 검사받게 했습니다 .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일도 없이 약 한 알도 먹지 않고 의사는 집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 저는 파룬궁 사부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

우리 가족은 차례로 파룬궁 사부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 저는 오늘 특별히 이 글을 써서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리홍쯔 (李洪志) 대사님의 은혜에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합니다 .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파룬따파하오 , 찌싼런하오 !’를 알았으면 합니다 . 중생이 모두 구원받고 사악한 당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

(5 면의 계속) “영웅”을 한번 보려고 했던 것이다 . 듣자하니 취엔라이가 박해받은 진상자료를 그들은 모두 보았고 다들 아주 진감을 받았다고 했다 ! 왜냐하면 취엔라이는 ‘진선인 (真、善、忍)’진리의 바른 믿음을 견지했을 뿐만아니라 이처럼 거대한 난을 겪고도 그의 마음은 오히려 아주 탄연하기 때문이었다 . 취엔라이는 말한적이 있다 .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악행을 가했지만 나의 마음엔 그들에 대해 티끌만치도 원한이 없다 . 선악에 보응이 있음은 천리이기에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이후에 모두 감당해야 한다 . 그들은 무지중에 나에게 악행을 가했지만 사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을 해치고 있어 나는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그들이 매우 가엽게 느껴진다 . 유일하게 후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저지하지 못한 것이다 .”

무엇때문에 파룬궁수련생들은 이처럼 큰고생과 큰난을 견디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가 ? 취엔라이 옥중에서의 매 일분 일초의 견지는 대검난이 오기전에 사람을 구하고 곧 세인들에게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를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

문 / 구이엔